

사회

■ 르포-주택가 파고 든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

교묘한 위장속 '미꾸라지 불법 영업'

차량서 은밀 환전... 범망 빠져나가 단속 어려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합법을 가장하거나 더욱 은밀해진 방식으로 단속의 눈을 피해 도심 주택가 곳곳에 들어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지난 22일 광주시 북구 용봉지구 한 아파트 앞. 이곳은 상업지구라고는 하나 직선으로 20m도 안 되는 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사우나와 식당 심지어 학원까지 가까이 있는 곳이다.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인 이곳에서 합법을 가장한 도박이 이뤄지고 있으리라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경상북도 한 경찰들이 이곳 주변에서 불법의 현장을 잡기 위해 수일째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사전 첩보와 결정적 증거 포착, 신속한 기습 등 완벽한 준비는 했지만 애가 타는 건 하루 이들의 일이 아니다.

요즘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게임물 등급 심의를 통과한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시간째 오락실 주변에서 불법환전 현장을 잡기 위해 잠복을 펼치던 경찰관은 담당하지요원 1명을 들여보내 오락실 내부 상황을 살피게 했다. 뒤이어 여전히 40대 중년층 등 20여 명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는 보고가 전해졌다.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오락실.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인 이곳을 경찰 단속을 눈치챈 지 밤이 되자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라식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집중단속을 받아 197개 업소를 적발했지만 여전히 그 이상의 게임장이 성업중이다.

일반게임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을 제공한다해도 불법적인 행위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업주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내부나 차량에서 은밀하게 환전을 해 주거나 손님들끼리 쪽지를 통해 서로 환전해주는 등 교묘히 범망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40~50대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게임은 드래곤과 알라딘,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되는 성인 PC방에 비해 처벌의 범위가 수위도 '솔방망이'에 불과한 것도 이들 업소가 성업하는 원인 중의 하나다.

김흥식 광주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사행성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 게임장(오락실)이나 불법 게임장, 성인 PC방이 큰 차이가 없지만, 일반 게임장의 경우 단속 근거가 부족할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규제 할 별도의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선거비 과다 계상 모르는 일”

장휘국 검찰 조사 받아

선거비를 부풀려 보전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23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 시교육감은 지난 23일 오후 7시에 피형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7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24일 새벽 2시에 귀가했다.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날 조사에 앞서 장 시교육감은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의 허위 견적서 제출이라든가 선거비용 과다 계상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광주시민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며 진보교육청 탄압과 명백한 흡입 내기 수사인 만큼 검찰의 수사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 시교육감의 출두에 앞서 '장휘국 진보교육감 정치탄압 저지 광주시민 대책위원회' 소속 50여 명은 순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민의 교육감

을 범법자로 만드는 검찰 감압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NC의 허위 견적서를 통해 장 시교육감의 선거비용이 6000만원 가량 부풀려 보전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20일 장 시교육감의 선거 회계 담당자인 김모(45)씨의 광주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원본을 분석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나원침 (8594) 김종두



돈기로 아내 때려 숨겨

담양경찰은 24일 부인을 돈기로 때려 숨지게 한 윤모(34)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10분께 담양군 무정면 한 마을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32)씨와 다름을 벌이던 중 화가나 주변에 있던 돈기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윤씨는 범행 후 매형에게 전화를 걸어 싸운 사실을 알렸으며 매형이 119에 신고했다. 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땅 매매 잔금달라” 후배 흉기 살해

○해남경찰은 24일 땅 매매 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후배를 찔러 숨지게 한 70대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24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박모(75)씨는 이날 오전 6시께 해남군 해남읍 이모(64)씨 측사에 찾아가 땅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나 이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는 것.

○경찰은 3년 전 이씨에게 자신의 땅을 팔았지만 잔금 1200여만원을 받지 못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궁 중.

/서부취재본부=박희정기자 dia@

튜브만 있었어도...

점진강서 물놀이 대학생 들 인명구조함 장비없어 숨겨

‘튜브만 있었더라도...’

때 이른 무더위에 물놀이에 나선 대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난 23일 오후 2시44분께 곡성군 옥곡리 암록리 암록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광주 모 대학교 지모(25)·한모(23)씨가 물에 빠졌다. 지씨 등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여만에 차례로 발견됐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다.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지씨 등을 구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40~5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인명 구조함을 열었지만 로프나 튜브가 비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에는 안전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구조함에 물놀이 안전 장비를 비치해 놓지만 비시즌 중에는 도난의 염려가 있어 따로 보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대학 교직원이 여대생 성추행

피해학생 자해소동

전남 C대학교 직원이 학교 홍보영상에 동행했던 여대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8~9일 제주지역 교고 교장 등을 상대로 원정 입학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에는 대학 입학처 교수·직원 등 8명과 홍보대사 역할을 할 여학생(1년) 3명이 함께했다.

교직원들은 9일 목포로 돌아가는

여객선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 H(42)씨가 여학생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것.

피해 여학생 가운데 1명은 지난 12일 대학 기숙사에서 손톱으로 목덜미를 할퀴는 등 자해소동을 벌였으며, 대인 기피 등 피해 후유증을 겪고 있다.

말씀이 일자 입학설명회 책임을 맡은 교수는 보직을 사퇴했으며, 학교는 문제의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공권력 휘방 酒暴 갈수록 는다

광주경찰, 5월까지 92건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온 50대가 경찰에 구속되는 등 '주폭(주취폭력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습관화된 주폭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상습적으로 이웃 주민들을 괴롭히고, 경찰의 처안력에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24일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이모(59)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

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한 골목길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 변모(여·66)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다가 평소 안면이 있는 변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지인과 행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주민들에게는 '골칫덩이'로 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42범인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전과가 37차례나 되고, 14차례 교도소를 다녀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와 같은 주폭들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광주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김모(45) 경사는 지난 20일 술에 취해

여성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광주 모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황모(38)씨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광주서부경찰서 임모(39) 경사도 현장에서 출동했다가 만취한 윤모(20)씨에게 허벅지를 물렸다. 또 앞서 서부경찰서 백모(42) 경사는 최근 주취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온 이모(43)씨가 휘두른 철제 의자에 피해를 입는 등 지난 20~21일 밤사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사람만도 모두 4명에 달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86건이던 공무집행방해는 지난해 199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모두 92건에 달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트레일러 대 형 1,2종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 깨끗한 환경 ▶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진경”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